

# 농산물 가격 폭등...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 '꽂꽂'

**한은지역본부, 4월 소비자 동향 상승 한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 중동분쟁 여파 국제유가 상승 물가상승률 급등 전망 등 원인**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3월 들어 소폭 상승했다가 4월 들어 다시 하락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과 중동발 전 온 고조로 유가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

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란과 이스라엘간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48.5달러까지 치솟고 4분기 물가 상승률은 4.9%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0으로 전월(93.8) 대

비 1.8p 하락했다. 전국 평균 소비자심리지수(100.7)와 비교해도 8.7p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21개월째 이어진 소비 시장 암흑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한다. 기준값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하고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4월 중 광주·전남지역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 생활형편 CSI(86)는 전월(88)보다 2p 하락했고, 생활형편전망CSI(86)도 전월대비 2p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CSI(93)과 소비지출전망CSI(110)도 전월대비 각각 1p 하락했다. 현재 경기판단CSI(60)와 향후 경기전망CSI(70)는 전월보다 각각 1p, 2p 상승했다. 현재가계저축CSI(85)는 전월보다 2p 하락했고, 가계저축전망CSI

(88)는 전월과 동일했다. 물가수준전망CSI(136)는 전월대비 3p 하락했고, 주택가격전망CSI(95)는 3p 상승한 반면 임금수준전망CSI(113)는 1p 하락했다. 4월 소비자 동향 조사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 도시지역 600가구(응답 54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우편조사와 전화 인터뷰 방식을 병행해 조사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광주상의, 미래내일 일경험·일자리 지원정책 설명회

29일 대회의실서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2시 7층 대회의실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및 일자리 지원정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지원센터 운영사업' 일환으로 열린다. 1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안내, 2부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정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개별 상담코너를 합동설명회장 뒷편에 별도 운영하여 각 기관 지원정책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계획이다.

합동설명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광주상의를 비롯해 광주시(일자리지원시책)·광주지방고용노동청(달라지는 노동법)·광

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장려금)·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훈련)·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취업박람회)·광주경영자총협회(지역형플러스)·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중장년 고용서비스)·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혁신프로젝트)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광주상의가 운영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는 호남지역 일경험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일경험 사업홍보, 참여기업 발굴 및 설계컨설팅, 15~34세 미취업 청년 모집, 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통한 현장 직무 숙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디즈니 베이비' 오픈

광주신세계는 신관 지하 1층에 '디즈니 베이비' 브랜드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즈니 베이비는 아가방앤컴퍼니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협업해 만든 유아동 패션 브랜드로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해 0세부터 6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의류와 액세서리를 선보여 인기가 높다. 특히 '미키 마우스', '곰돌이 푸' 등 디즈니 특유의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과 컬러감을 가진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다양한 고객층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장려금)·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훈련)·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취업박람회)·광주경영자총협회(지역형플러스)·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중장년 고용서비스)·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혁신프로젝트)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 현대차 정의선 회장, 인도서 중장기 전략 점검

세계 3대 車시장...미래 성장 모색 "전기차 개발·전기차 인프라 확충"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인도를 방문, 현지의 미래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약 8개월 만이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시에 있는 현대차그룹 인도권역 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현대차·기아의 업무보고를 받고, 임직원들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정 회장이 지난해 방문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다시 인도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인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인도는 지난해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으며, 내년엔 일본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인도 자동차 시장도 지난해 500만대 규모로 성장하며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승용차 시장만 410만대 규모로, 오는 2030년에는 5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 정부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에 수입 전기차 관세를 100%에서 15%로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6년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는 현대차그룹은 인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현대차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 20만대 이상 규모의 신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며, 기아는 올해 상반기 생산능력을 43만1000대로 확대한다.

현대차 푸네 공장은 지난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인수한 곳으로, 현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지난 23일 현대차그룹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을 방문해 현지의 미래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재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 중이다. 내년 하반기 푸네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첸나이 공장(82만4000대)과 기아 공장 등을 포함해 총 150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전동화 작업도 본격화한다.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 첸나이 공장에서 현지 첫 전기차(SUV)를 양산하며, 기아는 내년 부터 현지 전략형 소형 전기차를 내놓는

다. 현대차와 기아는 충전소 건설 등 현지 충전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며, 인도 배터리 기업과 협력해 배터리 현지 조달도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은 "인도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 개발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전동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2030년까지 인도의 클린 모빌리티를 선도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최권범 기자

全南日報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 재테크 칼럼

### 안전 투자, 채권만큼 좋은 대상은 없다

개인 투자자에게 채권 투자는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진다.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등 다른 투자 자산에 비교해서 수익률도 낮다. 그런 때문인지 채권에 투자했다는 개인은 만나보기 힘들다. 그런데 최근 개인들의 채권투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수년 전만 해도 4조~5조 원 수준이던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투자 규모도 지난해 20조 원을 넘어서 5배 가량 성장했다.

채권은 크게 국채(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와 회사채(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채

권)로 구별된다. 지방채나 공채, 금융채 등도 있다. 이들 채권에 투자하면 일정한 금리를 받게 되고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정해진 금리와 함께 만기가 됐을 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보장받는다. 회사채도 똑같다. 다만 회사채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최우량 등급인 AAA에서부터 채무불이행 기업인 D 등급신용등급이 좋을수록 저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한다. 높은 이자

를 받으려고 위험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그 회사가 망하면 당연히 회사채는 휴지조각이 된다. 그래서 초보자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권하는데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최저투자단위가 크고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래서 채권ETF에 투자하기도 하는데 내년부터는 한국에도 개인들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저 10만원 단위로 개인투자자를 위한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채권투자에서 유의해야 하고 초보자가 난해해 하는 점은 채권의 가격이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가격은 상승한다. 채권의 금리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이다. 금리 10%에 매입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5%로 하락하게 되면 금리차 5%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채권을 매도할 수 있다. 채권도 주식처럼 만기가

되지 않아도 매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금리가 높을 때 매수했던 채권은 현재 하락한 금리의 차이만큼 상승한 채권가격으로 시장가가 형성되고 그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원리는 똑같다.

고금리 때 채권을 매수했다면 저금리 때는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도 받고 상승한 채권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어서 이중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만큼 좋은 투자 대상도 없다. 수익률은 다른 자산투자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채권투자를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